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코로나19 팬데믹과 신중국 경제 동향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환경의 확대와 시사점

북한포커스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코로나19 펜데믹과 신흥국 경제 동향	1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환경의 확대와 시사점	4

북한포커스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	6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9
--------------------	---

코로나19 팬데믹과 신흥국 경제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mgk101@kdb.co.kr)

-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자가격리 장기화로 생산 및 소비 활동 위축 등으로 환율 급등, 주가 급락 등으로 주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확대
- ◆ '20년 주요 신흥국 경제는 수요 위축, 교역 둔화, 생산 및 투자 감소, 실업률 확대 등으로 가계·기업·금융시장의 불안 심화로 마이너스 5%대 성장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주요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가중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둔화
 - 브라질 529,405명(2위), 러시아 414,878(3위), 인도 198,706명(7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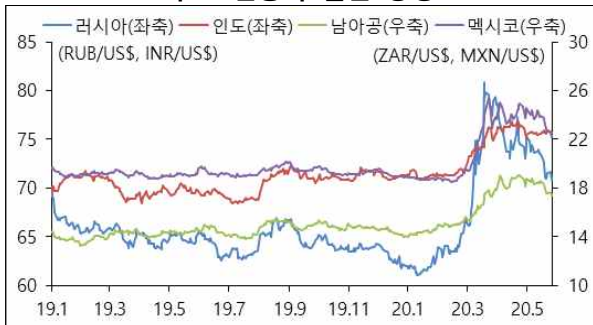
주요 신흥국 코로나19 동향(20.6.2. GMT 06:22 기준)

	브라질	러시아	인도	터키	멕시코	남아공
확진자	529,405	414,878	198,706	164,769	93,435	34,357
사망자	30,046	4,855	5,608	4,563	10,167	705
사망자/확진자	5.7	1.2	2.8	2.8	10.9	2.1

자료 : worldometer(www.worldometer.info/coronavirus/#countries)

- 신흥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환율 급등,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 확대
 - (환율)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급등하였으나, 3월말 이후 고점을 지나 소폭 안정화 추세
 - 연초 대비 환율 변동율(3월, 5월말, %) : 브라질 46.3(최고)→32.6, 멕시코 34.2(최고)→17.3, 러시아 31.1(최고)→13.7, 터키 20.9(최고)→14.8, 남아공 36.2(최고)→25.2

주요 신흥국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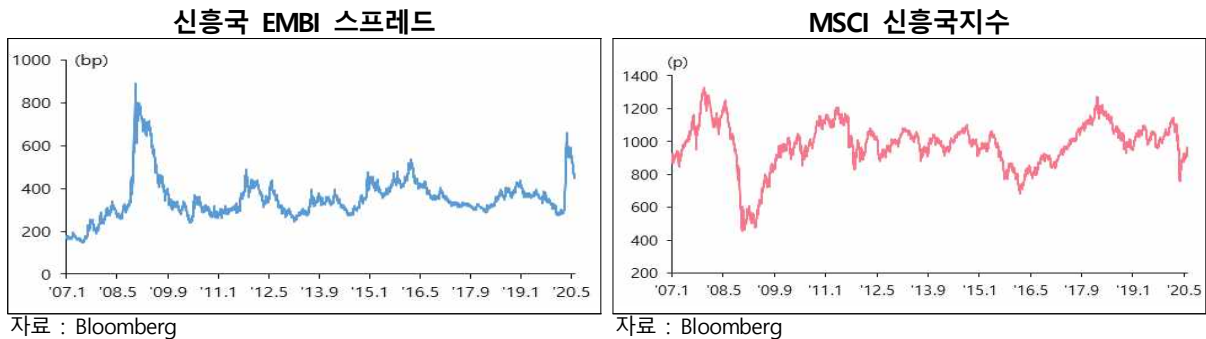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주요 신흥국 주가 동향



자료 : Bloomberg

- (주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주가가 급락하였으나, 3월 이후 저점을 지나 반등 추세
 - 연초 대비 주가 변동율(3월, 5월말, %) : 브라질 $\Delta 46.4$ (최저) $\rightarrow \Delta 26.3$, 러시아 $\Delta 46.8$ (최저) $\rightarrow \Delta 22.0$, 남아공 $\Delta 34.2$ (최저) $\rightarrow \Delta 12.5$, 인도 $\Delta 37.1$ (최저) $\rightarrow \Delta 21.5$
- (EMBI, MSC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흥국의 투자 위험도 상승과 부정적인 경기 전망으로 EMBI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MSCI 신흥국지수 급락
 - * EMBI는 JPMorgan이 신흥시장국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신흥시장 채권 펀드 투자수익률 지수이며, MSCI 신흥국지수는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신흥국주가지수
 - EMBI 스프레드(bp) : 280.34(1.1일) \rightarrow 463.4(5월말)로 183.06bp 상승
 - MSCI 신흥국지수(p) : 1,114.63(1.1일) \rightarrow 930.35(5월말)로 184.28p 하락



□ '20년 주요 신흥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영향으로 가계·기업·금융 시장 등에서 불안 심화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주요 신흥국의 '20.1분기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9.4분기 대비 감소되었으며, 2분기 이후 경기 위축 심화 예상
 - '20.1분기 신흥국 경제성장률('19.4분기 대비 %) : 중국 $\Delta 9.8$, 브라질 $\Delta 1.5$, 멕시코 $\Delta 1.2$, 인도네시아 $\Delta 0.7$, 터키 0.6
- '20년 주요 신흥국 경제는 방역의 상대적 취약, 자국 수요 위축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둔화, 원자재 수출 감소, 실업률 급증, 제조업 가동률이 저하되며 역성장 전망
 - 주요 신흥국 '20년 실업률(%) : 남아공 35.6%, 터키 17.2%, 브라질 11.9%, 멕시코 5.3%, 러시아 4.9%(IMF '20.4월 전망치)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

		(단위 : %)						
		신흥국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인도	멕시코	남아공
'20.1월 전망치	'20	4.4	1.9	2.2	3.0	5.8	1.0	0.8
	'21	4.6	2.0	2.3	3.0	6.5	1.6	1.0
'20.4월 전망치	'20	$\Delta 1.0$	$\Delta 5.5$	$\Delta 5.3$	$\Delta 5.0$	1.9	$\Delta 6.6$	$\Delta 5.8$
	'21	6.6	3.5	2.9	5.0	7.4	3.0	4.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4

- 나아가, 주요 신흥국은 대내외 건전성 지표 악화로 경제 취약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위축 심화 전망
 - 브라질, 남아공 등은 대내외 건전성 지표의 위험도가 높아 경제 위축이 심화 전망
 - 반면, 러시아의 건전성 지표는 5개국보다는 양호하여 대내외 부문별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주요 신흥국 대내외 건전성 지표(GDP 대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인도	남아공
경상수지	'20.4월 IMF WEO	△1.8	△0.3	0.7	0.4	△0.6	0.2
외환보유액	'19.4Q	18.8	13.5	25.5	10.2	15.0	13.1
대외부채	'19년말	36.5	36.8	27.8	56.4	19.6	50.5
재정수지	'20.3월 이후 IB 평균	△6.2	△2.9	△0.9	△4.1	△4.1	△7.7
정부부채	'19.4Q	88.5	36.4	15.3	32.6	69.0	64.1

(단위 : %)

주 : 각 지표별로 비교 대상국간 위험도가 높고/낮음에 따라 붉은색/파란색 음영으로 표시
 자료 : KCIF

- 주요 신흥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 정부지출 확대, 납세기한 연기, 금리 완화 등 다양한 부양정책 추진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주요 신흥국 경제정책

	주요 내용
브라질	-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가계 및 기업 유동성 공급(BNDES 110억 달러, Caixa 150억달러, 중앙은행 250억달러), 주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180억달러) - 근로자 연말보상(13월 보너스) 선지급, 저소득층 현금지원(Bolsa Familia) 증액, 세금납부 연기 등
멕시코	- 사회연금 및 장애연금 4개월 선지급, 공공주택신용기구 근로자 3개월 채무 부담 - 고용 및 임금 보전을 위한 소기업 대출(11.5억달러), 중소기업 대출(12.5억달러) 등
러시아	-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약 280억달러 지원 -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대출 및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납세기한 연기 및 대출 조건 완화 - 3~7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수당 지급,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가족에 대출 및 모기지 상환기한 6개월 연기, 실업급여 50% 증액 등
터키	- 76세 이상 퇴직자에게 약 240달러의 퇴직연금 지급, 기업과 저소득층 160억달러 지원, 신용보증기금(KGF) 한도 인상, 부채 및 세금 납세기한 연기 등
인도	- 기준금리 인하,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3개월 지불유예 등 유동성 경색 완화 - 저소득층 대상 현물(식량, 가정용 가스) 및 현금 지원, 저소득층 소득 지원 등을 위해 약 225억달러 규모의 긴급경기부양책 발표 등
남아공	- 269억달러의 경기부양책 발표, 기준금리 4.25%로 인하, 중소기업에 90일간 유급 휴가 지원 등

자료 : 각국 정부 사이트 및 대중매체 인용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환경의 확대와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송 상 규 (songsk@kdb.co.kr)

-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근로장소의 유연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업무공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확대
- ◆ 업무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차원에서 비대면 업무환경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의 인사관리를 '근태'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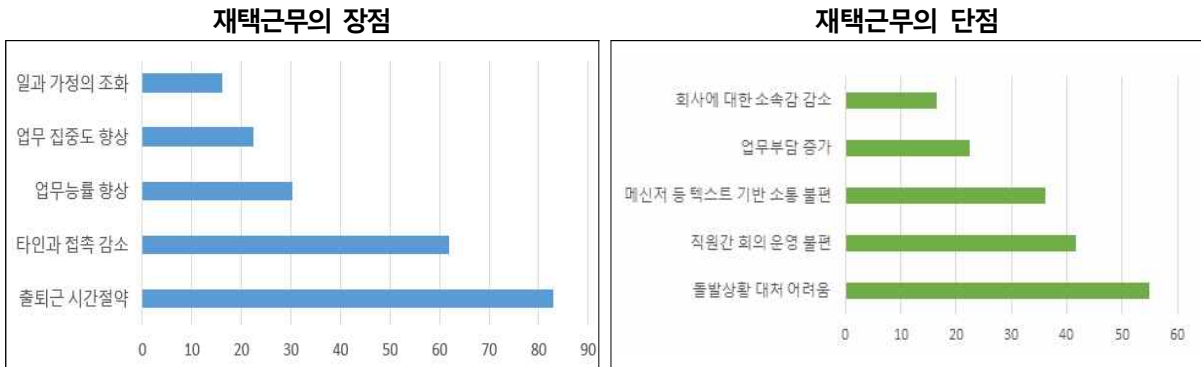
□ [코로나 이전]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모색

-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노무비 보조,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 노력
 - * 일하는 시간(사차출퇴근, 선택근무)이나 장소(원격근무, 재택근무)가 유연한 근무제도로 '00년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등이 마련되며 공식화
- 유연근무제 중 법제화된 근로시간 유연제와 달리 재택근무 등 근로장소의 유연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입 저조*
 -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19.3월), 유연근무제 도입비율은 24.4%(사차출퇴근 15.6%, 선택근무 9.2%, 원격근무 3.8%, 재택근무 4.7%)
- 근로시간 유연제는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근로장소 유연제는 직원에 대한 신뢰와 디지털 인프라 필요
 - 직원의 근태를 확인할 수 없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원격근무가 가능한 VDI*, 화상회의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부담 존재
 - *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 중앙 서버에 생성되는 직원 개인별 가상 컴퓨터

□ [코로나 영향]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 공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제 시행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20년(1.1~5.6일) 고용노동부 앞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자는 1만8,653명으로 '19년 317명 대비 59배 급증
 - *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520만원 지원

- 코로나19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엔데믹(endemic, 주기적발병)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절약, 업무능률 향상 등 재택근무의 장점 부각
 - * 잡코리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20.5.11)' 조사 결과 직장인의 62.3%(대기업 73.2%, 중견 68.6%, 중소기업 57.6%)가 재택근무 경험



자료 : 잡코리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 (20.5.11)

□ [코로나 이후]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직원 간 분리 근무를 넘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차원에서 비대면 업무환경 확대 전망

- 팬데믹 시대에 생산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며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 * Gartner의 '20.4월 조사에 따르면 CFO(317명)의 74%는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임차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의 5% 이상을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내외 기업들은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단순 방역 차원이 아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비대면 업무환경 확대 시도
 -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최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5~10년 내 전 직원의 50%가 원격 근무를 할 것'이라 발표하며 코로나19 경험을 계기로 기업 운영방식을 재조정할 것을 표명

국내 주요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도입 노력

기업	특징
SK이노베이션	첫 1주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후 3주간은 장소에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는 '1+3 테스트'를 시행 중에 있으며 테스트 결과를 SK그룹 근무혁신 방안에 반영 예정
NHN	임직원 대상 재택근무 설문조사 결과(긍정적 평가 88%)를 바탕으로 매주 수요일 회사 밖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수요 오피스' 제도 운영
롯데	'20.5월 롯데지주를 시작으로 '상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롯데쇼핑은 6월부터 본사 직원 3,2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행

- 다만, 국내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정착을 위해서는 VDI 등 '물리적 기반' 구축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를 '근태'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화 필요
 - 비대면 환경에서는 개인별 과업지시와 이에 기반한 평가와 보상이 명확할 때 프리라이더 없이 기업의 업무 생산성 확보 가능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이윤재 (eyoonjae@kdb.co.kr)

- ◆ '19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대비 16.1%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17년 이후 북중간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
 - UN 대북제재로 무연탄, 철광석 등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 ◆ '20년 1분기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Delta 52.7\%$, 수입은 $\Delta 79.3\%$ 감소
 - 코로나 19 확산으로 북중간 국경 폐쇄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
- ◆ 중국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필수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현 수준의 무역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19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0% 증가에 그침에 따라, '17년 이래 무역수지 불균형(중국 흑자) 추세가 심화

- '19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8년 대비 16.1% 증가한 25.7억 달러를 기록, '18년 전년대비 $\Delta 31.7\%$ 급감 이후 다소 회복세 시현
 - '11년 이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30억 달러 내외*를 유지
 - * '11년 31.6억 달러, '12년 35.3억 달러, '13년 36.3억 달러, '14년 35.2억 달러
 - '17년 33.3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난 심화 등으로 '18년 22.2억 달러로 $\Delta 31.7\%$ 감소
- '19년 중국의 대북한 수입은 '18년 대비 1.0% 증가한 2.2억 달러로 '17년 $\Delta 33.0\%$, '18년 $\Delta 87.7\%$ 의 급감 추세에서 탈출
 - 다만, '19년 실적은 UN 대북제재 본격화('17년) 직전인 '16년 25.4억 달러의 8.5% 수준에 불과함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3월)
수출	2,945	2,833	3,332	2,218	2,574	215
증감률	$\Delta 16.3$	$\Delta 3.7$	8.2	$\Delta 31.7$	16.1	$\Delta 52.7$
수입	2,565	2,539	1,723	213	215	11
증감률	$\Delta 10.6$	$\Delta 1.1$	$\Delta 33.0$	$\Delta 87.7$	1.0	$\Delta 79.3$
무역수지	380	294	1,608	2,005	2,359	204

자료 : 중국 해관총서

- '19년 중국의 대북한 무역수지 흑자는 '18년 대비 17.7% 증가한 23.6억 달러로 북중간 무역 불균형 추세가 심화
 - 특히, 북한은 무연탄, 철광석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UN의 수출규제 이후 대체 가능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UN의 북한 무역 관련 주요 조치

북핵 이슈	UN 결의안	주요 내용
4차 핵실험 ('16. 3. 2)	UNSCR 2270 ('16. 3. 2)	- 항공유 대북 수출 금지 - 비민생용 북한산 무연탄/철광석 수입 금지
5차 핵실험 ('16. 11. 6)	UNSCR 2321 ('16. 11.30)	- 북한산 무연탄 수입 전면 금지
ICBM 발사 ('17. 7. 2)	UNSCR 2371 ('17. 8. 5)	- 북한산 철광석, 납과 연광, 수산물 수입 금지 - 북한 노동자 신규 파견 금지 - 대북 직접투자(FDI) 금지 및 확대 금지
6차 핵실험 ('17. 9. 3)	UNSCR 2375 ('17. 9.11)	- 원유의 대북한 수출 상한 설정 - 북한산 직물/의류 등 섬유류 수입 금지 - 120일 내 북한과의 경협사업 폐쇄 - 북한 노동자의 계약 갱신 금지
ICBM 발사 ('17.11.29)	UNSCR 2397 ('17.12.22)	- 북한산 곡물 및 농산품, 기계류, 광물류, 목재류, 전기설비, 선박에 대한 수입 금지 - 북한 노동자의 고용 전면 금지

□ '20년 1분기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

- '20년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동기비 52.7% 감소한 2.2억 달러로, '19년 기록한 회복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
- 동 기간중 중국의 대북한 수입 또한 79.3% 감소한 0.1억 달러에 불과
- 이는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경 폐쇄로 중국인, 러시아인 등을 포함한 외국인 출입을 전면 봉쇄한 영향으로 추정

□ UN의 본격적인 대북제재('17년) 이후, 중국은 주민 생활 관련 소비재 위주로 수출하고 북한의 공업용 원자재를 수입

- 중국의 주요한 대북한 수출품은 유지(油脂), 콩기름, 곡물, 쌀, 요소비료, 사과 등 주민 생활 관련 소비재가 중심

- 중국의 대북한 수입품은 철합금, 황산칼슘, 공업용 실리콘 등 공업용 원자재 위주로 구성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수 출			수 입		
품목	'18년	'19년	품목	'18년	'19년
유 지 (油脂)	155,672	142,900	철합금 (Ferroalloys)	29,786	31,846
콩 기 림	135,631	121,971			
곡 물 (콩, 밀, 수수 등)	3,168	83,942			
쌀	2,032	77,510	황산칼륨 (Potassium Sulphate)	851	1,007
요소비료(尿素)	78,835	28,804			
사 과	49,784	28,171	공업용 실리콘 (Silicon)	1,477	794
천 연 고 무	10,729	7,522			
옥 수 수	1,137	6,292			

자료 : 중국 해관총서

□ 향후 중국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필수품 공급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 수준의 무역규모를 견지 또는 소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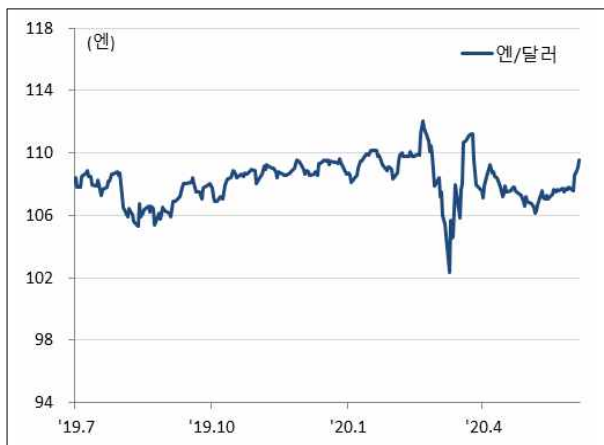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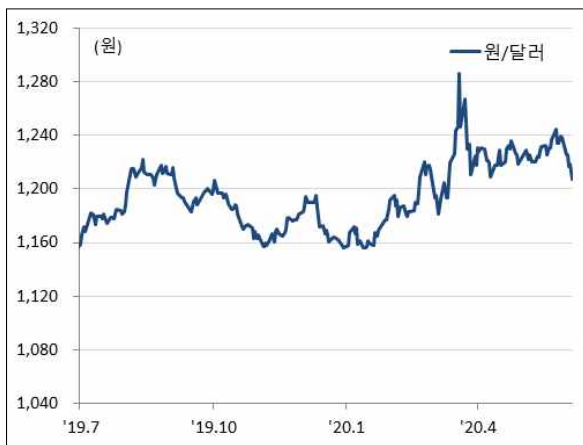
- 북한의 대외 결제능력 한계 등으로 북중간의 무역 주도권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확대할 유인이 적음
 - 특히, 최근 무역적자 지속으로 북한의 결제용 외화 보유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높음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관광 수입 축소 등으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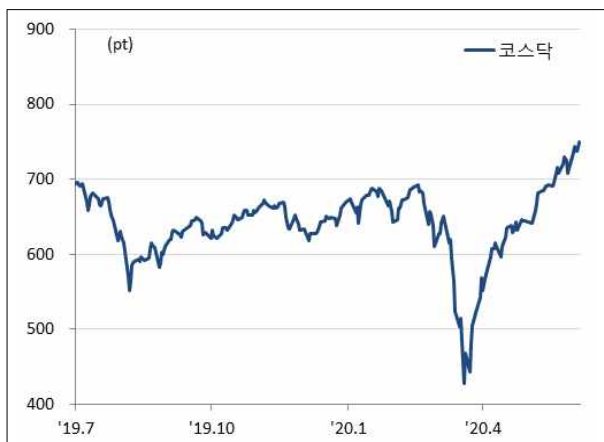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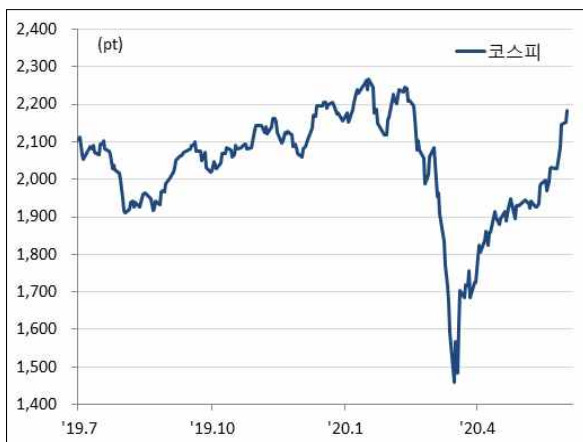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894% (6.8bp ↑), 신용스프레드 78.1bp (2bp ↑)



환율 원/달러 1,207.1원 (31.4원 ↓), 엔/달러 109.59엔 (1.79엔 ↑)



주가 코스피 2,181.87pt (7.5% ↑), 코스닥지수 749.31pt (4.99%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81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